

국가지정 사적 하라성 성터 안내도



하라성 혼마루 옛터

幸右衛門 和宗



아리마씨 시대에는 중신들의 저택과 관청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오에 겐에몬(大江源衛門) 이하 3,500명이 수비를 맡았다.

하라성 중에서도 가장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며, 아리마씨 시대에는 영주의 저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아리마쿠치노츠, 가즈사, 미에우라의 주인 5,700명이 수비를 맡았다.

아리마 시대에 천수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곳이다.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총대장 아마쿠사 시로(天草四郎)가 여기에 본진을 두고, 부하 용장들과 방전 대비책을 강구했던 곳으로 2,000명의 수비군과 유격대 2,000명이 있었다.

「혼마루」와 「하토야마데마루」의 사이에 위치한 이 평지는 아리마씨 시대에 승마 연습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마바라의 난 당시에는 인원을 접호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축성 당시의 석벽이 지금도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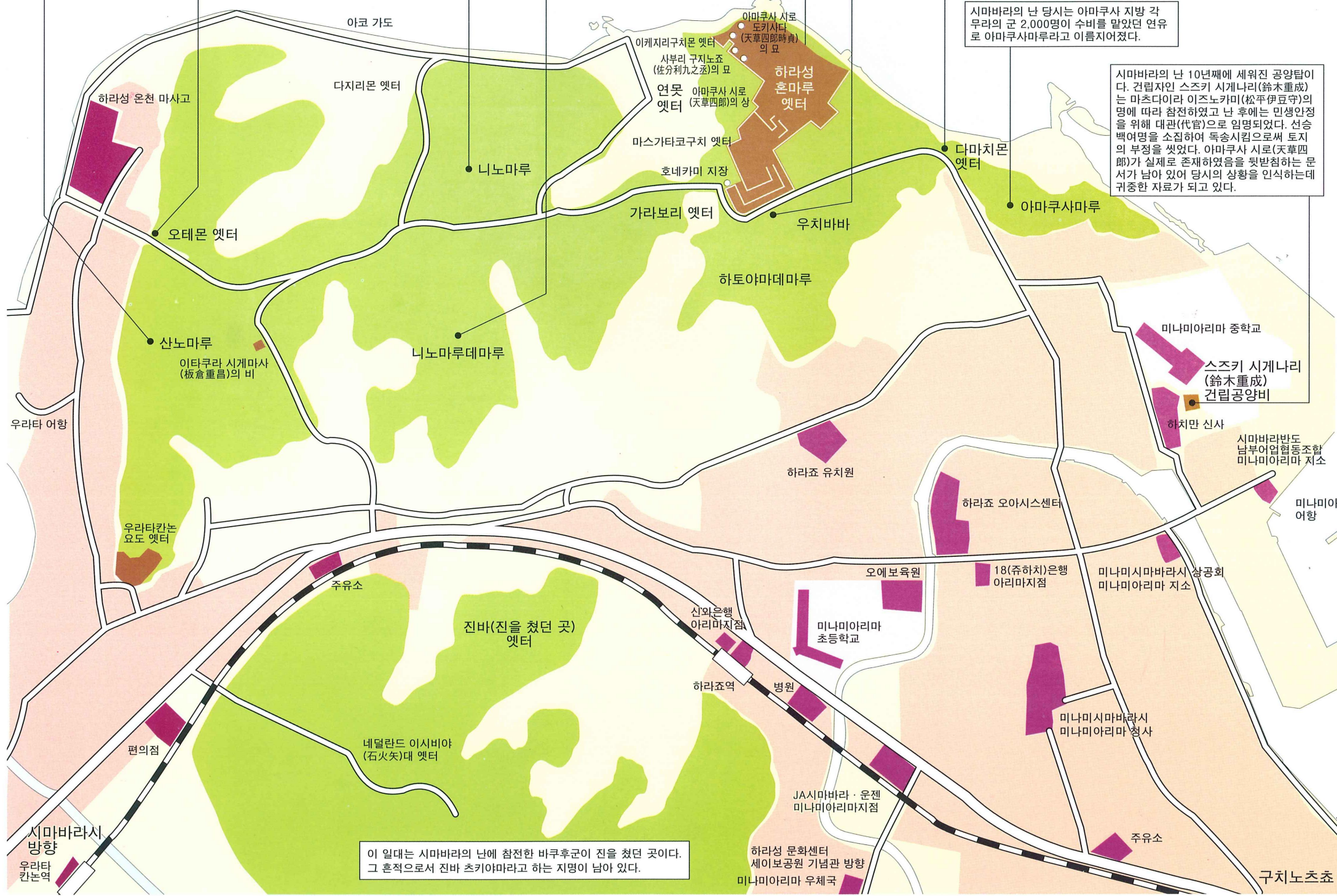
시마바라의 난 당시에는 지지와와 구치노츠의 주민 1,400명이 수비를 맡았던 곳으로 1638년 2월 21일 이곳에서 봉기군이 구로다 데라사와 양 진영에 야습을 결행하였다.

시마바라의 난 당시에는 아마쿠사 지방 각 무리의 군 2,000명이 수비를 맡았던 연유로 아마쿠사마루라고 이름지어졌다.

시마바라의 난 10년째에 세워진 공양탑이다. 건립자인 스즈키 시게나리(鈴木重成)는 마츠다이라 이즈노카미(松平伊豆守)의 명에 따라 참전하였고 난 후에는 민생안정을 위해 대관(代官)으로 임명되었다. 선승 백여명을 소집하여 독송시킴으로써 토지의 부정을 씻었다. 아마쿠사 시로(天草四郎)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남아 있어 당시의 상황을 인식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638년 2월 27일 바쿠후군이 총공격을 가한 계기가 되었던 곳. 사가나베시마군이 먼저 적진에 쳐들어감으로써 예정보다 하루 빨리 총공격이 이루어졌으며 다음날 28일 하라성(봉기군)은 함락되었다.

하라성의 정면 환관이며,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후츠, 도사키무라 등 3,500명이 산노마루와 함께 수비를 맡았던 곳이다. 난 후에 이곳 입구에는 봉기군들의 머리가 많이 널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마바라의 난 1637-1638

1613년 바쿠후의 기리스탄 금교령에 따라 신도들에 대한 탄압이 극에 달해 시마바라반도 아마쿠사 지방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이와 더불어 시마바라성 축성에 따른 가혹한 노력과 무거운 세금을 영지내의 주민들에게 부과했다. 또한, 수년동안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한 흉작까지 겹쳐 공핍의 한계에 몰려 더이상 견딜 수 없었던 아마쿠사 시마바라의 농민들이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켰다. 1637년 12월 총대장 아마쿠사 시로 도키사다(天草四郎時貞) 휘하에 기리스탄 신앙을 단결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던 아마쿠사 시마바라의 농민이 합류하여 황폐한 성으로 변한 하라의 고성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아마쿠사측에서는 하야자키세토를 건너온 1만 4천여명이, 시마바라측에서는 대부분의 영지내 주민 2만 3천여명이 함께 하라의 고성에 합류하여 봉기 인원은 총 3만 7천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쿠후군 12만 5천의 군을 상대로 봉기군은 약 3개월에 걸친 공방전을 펼친 끝에 1638년 2월 28일 봉기군측은 3만 7천여명, 바쿠후측은 1만 수천명의 사상자를 내고 종말을 고했다. 시마바라의 난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농성을 한 자는 모두 처형했다고 하는 일본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건으로, 그 뒤에 왜국체제가 확립되었다고도 전해지는 대란이었다. 그 후 영지내의 주민이 사라진 영내로 강제이민령이 내려져 분고, 사츠마, 쇼도시마 등 각지로부터 많은 이민이 유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라성 혼마루 옛터까지	도보 15분
하라성 오테몬 옛터까지	도보 10분
하라성 온천 마사코까지	도보 15분
미나미시마바라시 미나미아리마 청사까지	도보 8분
하라성 문화센터까지	도보 10분
하라성 관광협회까지	도보 5분
우라타칸논(오도 옛터)까지	도보 8분

【명소 순례】
 하라조역⇒진바 옛터⇒우라타칸논(오도 옛터)
 ⇒오테몬 옛터
 ⇒이타쿠라 시게마사(板倉重昌)의 비(산노마루)
 ⇒니노마루⇒호네카미 지장
 ⇒하라성 혼마루 옛터⇒다마치몬 옛터
 ⇒스즈키 시게나리(鈴木重成) 건립공양비
 ⇒하라조역

- 시설
- 명소·고적
- 주택가·상점가

이 일대는 시마바라의 난에 참전한 바쿠후군이 집을 찢던 곳이다. 그 흔적으로서 진바 츠키야마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 있다.

시마바라시 방향
우라타칸논역